불교가 알아야 할 2025트렌드

#기후감수성 · #무해력

기후위기시대 도래…불교, 다시 환경이다

#기후감수성

2024년 지구 역사상 뜨거운 해
날씨예보 등 기후비즈니스 각광
공공분야 기후복지 필요성 확대
불교계도 기후위기 실천 나서야

2024년 7월 22일. 이날은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됐다. 실제 2024년은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던 해이기도 했다. 앞선 2023년 7월 UN은 지구온난화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 같이 알렸다.

"이제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가 끓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UN이 '끓는 시대'의 서막을 선언한 것은 허언이 아니다. UN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0.6도 증가했다.

문제는 단순히 지구의 온도 상승에만 그치지 않는다. 급격한 기후 변화는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환경의 모습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기후 재난에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 감수성'이 필요하다.

〈트렌드코리아 2025〉에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기후감수성은 뜨거워진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사회 전반의 문화로 자리잡은 제로웨이스트와 비거니즘은 불교와도 맞닿는다. 불교는 과도한 소유를 경계할 것을 강조하며, 승가 공동체도 생태순환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분소의나 발우공양 등의 전통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불교계는 2000년대 개발자본에 맞서서 환경운동에 나섰던 저력이 있다.

과거의 불교환경운동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거대자본과의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여러 요인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대중이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의식을 높일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 종단 차원의 최우선과제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까지 교단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승려연수교육과 각 사찰 불교대학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등을 필수과목으로 담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이 연수교육과정에서 환경이나 기후위기 관련 강좌는 전무하다.

간혹 사찰전문경영인 과정에서 특강이 마련되지만,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승가결사체를 통해 한마음선원이 'EM지구사랑 작은실천' 결성해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재가불자들을 교육하는 사찰불교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육 대부분은 부처님 생애와 불교의 이해, 경전 교리 등에 치우쳐 있다. 시대에 맞춰 기후위기에 대한 불교적 실천론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기후위기시대,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10여 년 전 만들었던 불교환경의제 21을 리뉴얼해 모든 불자들을 불교적 환경운동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수계법회에서 삼귀의, 오계와 더불어 환경오계를 함께 수지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유행하는 플로깅(plogging·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개념을 의미하는 신조어)을 접목해 산의 쓰레기를 치우는 템플스테이나 법회를 여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불교는 다시 한번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무해력' 있는 종교가 돼야 합니다

#무해력

작고 귀여운 것에 열광 '무해력'
무해한 존재에 사람들은 따라
호감도 높은 불교, '무해력'도 ↑
사회참여 확대 등 무해력 강화를

최근 MZ세대들의 가방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키링'이다. 귀엽고 앙증맞은 인형으로 구성된 '키링'은 MZ세대의 가방을 점령했다.

키링 뿐만 아니라 최근 화제가 되는 팝업스토어나 굿즈,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보면 예쁘고 앙증맞은 것이 가득하다.

왜 사람들은 작고 앙증맞은 키링이나 굿즈들에 열광할까. 〈트렌드코리아 2025〉는 이를 '무해력(無害力)'에서 찾는다. "무해한 존재들의 공통점은 해로움이 없고, 그래서 나에게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무해력'은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능력이다. 갈등과 경쟁이 많아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무해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 역시 '무해력'이라는 트렌드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중적인 호감도와 이미지가 해당 종교의 포교와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행히 불교는 대중적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종교인식조사'에 따르면 불교의 호감도가 51.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진 호감도는 가톨릭(48.6)과 개신교(35.6), 원불교(28.0), 이슬람교(16.3) 순이었다. 불교 호감도는 개신교 호감도와 15.7점의 차이를 보였고, 5대 종교 중 유일하게 보통(50점)을 넘었다.

누구에게도 종교를 강권하지 않고, 갈등하지는 않는 불교는 현재 대중들에게 대표적인 '무해한' 종교로 여겨진다. 여기에 사회적 실천 등 대중과 함께 하는 보살행이 더해진다면, 불교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무해력'이 높은 종교로 거듭날 것이 분명하다.

기실 '무해력'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내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보듬어줄 존재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 운동이나 템플스테이 등은 대중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무해한 콘텐츠이기도 하다. 어지러운 세상 '무해함의 전성시대'에 무해력은 생존 전략이 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문 장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총무국장 보관 / 문화원장 성일
기획국장 향성 / 종책실장 덕산
교무국장 용안 / 문화국장 혜복
재무국장 성우 / 사회국장 법륜
포교국장 탄학 / 호법국장 현묵
전법국장 혜교 / 복지국장 혜각
연수국장 청효
문화특보 혜공 / 사회특보 도심
정무특보 혜성 / 복지특보 무일/최종환
전법특보 묘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 연꽃유치원 /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 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리 실버인력뱅크 / 구리 인창경로식당